데뷔 20년차 배우 박성웅

"입체적인 연기 즐거웠죠"

최근 종영 SBS '리멤버-아들의 전쟁'서 박동호역

1990년대 후반 서울의 한 법대를 다니던 젊은이는 어느 날 신림동에서 대학로로 인생 방향을 틀었다. "집안에 판검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던 아버지에 맞서 '아들의 전쟁'을 치르고 1997년 연기를 시작한 청년의 무명 생활은 길었다.

"너는 (성공 확률에서) 복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면서도 연기를 접지 않았던 그는 이제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배우로 성장했다. 지난 18일 미니시리즈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인 20.3%의 시청률로 종영한 SBS TV '리멤버- 아들의 전쟁'에서 박동호 변호사로 열연한 배우 박성웅(43)이다.

◇"유승호, 팬으로서 사랑해… 갈수록 서로 의지" = 서진우(유승호 분)의 '키다리 아저씨' 같았던 박동호는 서촌 여대생 살인사건 진범이 서진우 아버지가 아닌 재벌가 자제 남규만(남궁민)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놓고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포기, 진우와 시청자들의 원수가 됐다.

돈 냄새만 쫓는 줄 알았던 박동호는 이후 서진우가 치르는 '아들의 전쟁'에 동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박성웅은 "원래 박동호 머릿속에는 서진우 부자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다만 때를 기다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웅은 극 중 이색적인 '브로맨스'(남자간 뜨거운 우정을 뜻함)를 선보인 유승호에 대해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착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 1993년생인 유승호는 박성웅보다 스무 살 어리다.

"이 작품을 찍으면서 승호를 정말 팬으로서 사랑하게 됐어요. 또 나이답지 않게 사람이 진중해요. 군대를 왜 그렇게 일찍 다녀왔느냐고 물었더니 어렸을 때 자신이 원해서 연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 욕심도 있지만, 그걸 티내지 않고 열심히 하는 친구에요. 나중에는 갈수록 서로 의지하게 됐어요."

◇ "박동호 캐릭터 핵심은 의상" = 등짝에 용 한 마리를 새긴 박동호는 초반에는 조직폭력배인지, 변호사인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빨주노초파남보 총천연색 의상도 연일 화제였다.

"첫 촬영이 '빽양복'에 핑크 셔츠를 입고 '빽구두'까지 신고서 살인 현장을 찾는 장면이었는데 '몸뚱어리가 몸뚱어리인지라' 또 어울리는 거예요. 하하하. 정작 PD는 너무 평범하다고 해서 바지를 걷어 올렸던 기억이 나요."

박성웅은 "처음에는 (코디들이) 이런 옷들을 어디서 구해오지 싶을 정도로 난감했는데 나중에는 극중 입었던 오렌지색 코트까지 샀다"면서 "점점 박동호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반부 경상도 지역 시청자들로부터 질책받았던 사투리 연기는 충청도 출신 박성웅에게 적지 않은 고충이었다고. 사투리 선생까지 뒀다는 그는 "(억양 표시가 많았기에) 제 대본은 거의 악보 수준이었다"면서 다시 껄껄껄 웃었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가, 재벌과 결탁해 진실을 저버리는 검사, 그와 손잡고 무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조작하는 형사, 살인 청부 의뢰에 응하는 조직폭력배 등 '리멤버'에는 온갖 '나쁜 놈'들이 넘쳐났다.

올해로 데뷔 20년을 맞이한 박성웅은 '리멤버'에 대해 각별한 마음을 표했다. 그는 "'리멤버' 이전까지는 센 캐릭터로만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입체적인 캐릭터라 너무 좋았다"면서 "이번에는 시청자들을 웃기기도, 울리기도, 또 통쾌하게 해주기도 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성웅은 한때 기라성같은 선배 연기자들 뒤에서 건달3, 행인1, 기자2로 등장하면서도 "나도 나중에는 저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버텼다. '연봉 50만원'인 시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대중에게 연기를 통해 희로애락을 안겨주는 삶이 좋아 보였어요. 지금의 위치까지 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포기 안 할 확신은 있었어요."

/연합뉴스

과거에서 온 간절한 신호 tvN '시그널'

배우·스토리·완성도 '완벽한 하모니'

tvN 금토드라마 '시그널'〈사진〉에 대한 호평이 자자하다. 이 드라마는 지난 20일 10화에서 시청률 9.7%를 기록하는 등 장르 드라마의 한계를 벗어나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무선교신이 주는 스릴 넘치는 판타지와 그로 인해 인물들의 생과 사마저 뒤바뀌는 상황이 긴장감을 높이는 '시그널'은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고른 호연이 어우러져 웰메이드 드라마로 자리매김했다.

◇ 과거로부터 걸려온 신호, 미제 사건을 파헤치다= '시그널'은 무전기로 현재와 과거의 형사가 교신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1989년에서 시작해 1995년을 거쳐 1997년까지 이르는 '과거'와 2015년의 현재가 간헐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땅에 묻혀있던 미제 사건들이 하나둘 파헤쳐진다.

피해자들의 원한은 물론이고,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경찰의 수치심도 함께 끌어안고 있는 미제 사건들이 길게는 2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에 과거의 형사도, 현재의 형사도 분개하면서 이야기는 뜨거운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

과거의 형사 이재한(조진웅 분)과 현재의 형사 박해영(이제훈)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공조수사'를 펼치고, 그를 통해 미제 사건의 범인을 잇따라 검거해내는 과정은 통쾌하고 후련하다. '시그널'의 홍보문구 '과거로부터 걸려온 간절한 신호'는 정의를 꿈꾸는 시청자들의 희망을 그러모으는 데 성공하며 드라마의 절박한 판타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 새롭지 않은 소재를 새롭게 그리다= 과거와 현재가 교신을 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인물이 뒤섞기는 이야기는 지난해 개봉 30주년을 맞은 할리우드 SF코미디 영화 '백 투 더 퓨처'를 중심으로 숱하게 만들어져왔다.

'시그널'은 그중에서도 tvN이 2013년 선보인 '나인 아홉번의 시간여행'과 많이 비교된다. 과거가 바뀌면서 그 연쇄작용으로 현재도 바뀌는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두려움과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 닮았다. 하지만 사사로운 개인사를 다룬 '나인'과 달리 '시그널'은 사회적인 미제 사건 해결과 늦게라도 바로 세워야하는 정의를 향해 달려가며 시간 왜곡이라는 익숙한 소재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여주인공 차수현(김혜수)의 생사마저 좌지우지하는 과거와 현재의 교신이 황당함을 주는 대신, 지지를 받는 것은 주인공들이 애를 써가며 지향하는 목표가 그만큼 보편적인 공감을 얻기 때문이다.

◇ 배우들의 열연과 섬세한 연출의 하모니= 시청자들은 주인공 3인방인 김혜수, 조진웅, 이제훈은 물론이고, 범인을 비롯해 모든 등장인물의 연기가 살아있다고 극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혜수의 열연이 압권이다. 청순하고 순수했던 새내기 순경 시절의 모습과 현재의 베테랑 형사의 모습을 오가는 그의 연기는 1인2역과 다를 바 없다. 김혜수는 동안 미모와 꽉찬 연기력으로 순정하고 파릇파릇했던 과거의 차수현과 건조하고 냉철한 현재의 차수현을 매끄럽게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50 KBC 생활뉴스
11	40 충격 실화극 〈싸인〉(재)	00 네트워크 특서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안녕 우리말(재)	00 수목드라마 〈장사의 신 - 객주2015〉(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10 닥터 365 15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50 SBS 12뉴스
12	10 뉴스특급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재)	50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00 역사저널 그 날(재) 50 별별가족(재)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2	30 직언직설	00 가요무대(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00 열린 TV시청자세상
3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튼튼생활체조(재)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5 프리파라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다큐 공감(재)	00 TV유치원 30 이욱정 PD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0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40 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강정책 방송연설	00 고향이 보인다 30 꾸러기 탐구생활
5	30 김승련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제20대 총선 정강정책연설 30 시사진단	00 비타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변신자동차 또봇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KBC 생방송 투데이
7	00 풍문으로 들었SHOW(재)	00 KBS 뉴스7 30 사람과 사람들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마녀의 성〉
8	30 한번 더 해피엔딩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꿀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숨터	00 공사창립특별기획 〈대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한밤의 TV연예
12	5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5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다문화 사랑
06:10 세계의 눈 〈재앙의 재구성 -패딩턴 열차 사고〉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꼬마버스 타요
07:45 로보카 폴리
08:00 딩동댕 유치원 1~3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
09:40 부모-고수다 〈이젠 눈치 그만 봐도 〉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누룽지황태국밥과 황태오징어무침〉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사선에서
13:00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
13:10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13:40 사이틴-지구인 자격평가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미앤마이로봇
14:30 코코몽2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0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팡팡(재)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EBS 어린이 드라마 〈플루토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0:40 다큐 오늘 〈삶, 생존 본능〉
20:50 세계테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뉴질랜드〉
21:30 한국기행 〈겨울 지리산에 가면〉
21:50 EBS 다큐 프라임 〈결혼의 진화〉
22:45 극한직업 〈아치형 주택 제작〉
23:35 장수의 비밀
24:10 한국영화특선 〈서편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4일(음 1월 17일 丙子)

子 **48년생** 융통성만 있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다. **60년생** 항심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72년생** 길 성으로 향하는 인연이 보인다. **84년생** 무주공산을 걷고 있는 판도라 할 것이니 알아주는 이가 없다. 행운의 숫자 : 52, 75

丑 **49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61년생** 숙명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겠다. **73년생** 서로 응하여 융합하게 되는 기쁨이 상당하다. **85년생** 상대를 존중했을 때 자신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5, 60

寅 **50년생**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법이니 미진도 소홀히 하지 말라. **62년생** 처세를 원만하게 하면 행운이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74년생** 모순 속에 갇힌 습관이 문제로다. **86년생** 만만찮은 상대가 나타나서 힘들게 한다. 행운의 숫자 : 34, 12

卯 **51년생**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는 것이 낫다. **63년생** 신념은 가지되 중용의 도는 잃지 않는 것이 중하다. **75년생** 정체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 **87년생**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이어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다. 행운의 숫자 : 26, 20

辰 **40년생**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포착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52년생** 파상적으로 몰려오는 형상이다. **64년생** 건실한 발상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법이다. **76년생** 기쁜 시간을 나누리라. **88년생** 성사되는 쪽으로 기울었다. 행운의 숫자 : 72, 38

巳 **41년생** 중심이 되는 곳을 주목하자. **53년생** 크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있다. **65년생** 기본적인 정황을 중시해야 할 판세로다. **77년생** 보람을 느끼리라. **89년생**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행운의 숫자 : 23, 84

午 **42년생** 멈추었다가 다시 속개되는 모습이다. **54년생** 부딪치면 서로 손해이니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다. **66년생** 솔직하게 대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78년생** 깔끔한 신변 정리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28, 63

未 **43년생** 편의만을 추구한다면 자기 틀에 갇히리라. **55년생** 되풀이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7년생** 의도적으로라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옳다. **79년생** 언행을 삼가지 않으면 곤혹스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78, 08

申 **44년생** 기존에 해 왔던 바대로 정진하면 희망이 보인다. **56년생**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예의 주시하라. **68년생** 융통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80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행운의 숫자 : 41, 49

酉 **45년생**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고 있는 형상이다. **57년생**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이 대한다면 낭패를 볼 것이다. **69년생** 가능한 일이니 주저하지 말고 최선을 다 하자. **81년생**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8, 06

戌 **46년생** 원인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알자. **58년생** 고통의 끝에 달콤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70년생** 상당한 기간을 두고 서서히 유도해 나가자. **82년생** 우선순위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32, 67

亥 **47년생** 자생력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세이다. **59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목전의 상황에 충실하자. **71년생** 선의를 악용하려는 이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83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9,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